

## 스마트 기술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도

광주시 스마트시티과  
2018.8.6.

울산시 재난관리과  
2018.8.8.

### 광주시, CCTV 영상 정보 실시간 연결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시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시민들의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광주시의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가 8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는 광주시에 설치된 4,500여 대의 CCTV 영상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시 재난상황실로 실시간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112 긴급 영상 지원서비스 ▲경찰관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 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5대 시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가 시행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관제요원은 범죄 의심 현장을 포착할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112 신고 전화를 받으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GPS 위치 영상을 요청해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CCTV 5개소의 영상을 즉각 전송받을 수 있다. 경찰관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은 사진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 전송하는 것이다. 119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이 가는 길목의 교통상황 및 주변 상황 CCTV 영상을 제공해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길이 막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신고용 단말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CCTV 영상을 경찰에게 전송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울산시, 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울산시가 '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 시연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제방 유실, 가옥·차량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홍수 예측 정보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화강 등 지역 주요 하천 11개소에 대해 홍수 대응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위험 단계별 예·경보 발령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2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총 26개 수위관측소를 구축하였으며, 하천감시 CCTV 68개(기준 44개, 신설 24개)도 설치·관리된다. 구·군 배수펌프장(23개소)과 육갑문(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갖춰졌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IT 기술 등 첨단과학을 접목한 재난관리 시스템 확충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